부처님 법 연꽃에 비유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① 법화경의 특징

법화경은 화엄경과 더불어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경이다. 화엄경이 불(佛)을 설했다면 법화경은 법(法)을 설하여 두 경전이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을 다 설했다고 말해 왔다. 원래 이름 묘법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 온 예가 많았고 법화삼매참법 등 특별한 불교의식이 이 경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였다.

경명의 범어 이름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harma pundarika sutra)로 미묘한 법이 마치 연꽃이 물에서 자라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푼다리카는 흰 연꽃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의 이름을 두고 말한 것이다. 한역본이 7역이 있는데 똑같은 원전을 의지하여 붙인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이 7역중 구마라습 역의 묘법연화경(406년 번역)7권과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286년 번역)10권과 수나라 때 사나굴다가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601년 번역)7권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된 것은 구마라습의 역본이며 이 역본을 주해한 계환해본(戒環解本)이 널리 의용되어 왔다.

법화경은 한역본 외에도 범어본, 티베트본, 위구르어본, 서하어본, 몽고어본, 만주어본 등이 있어 다른 경전들 보다 일찍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물론 영역본도 나왔다.

"뭇 별 가운데 달이 으뜸이듯이 수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으뜸이다." 하여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말해 오기까지 하였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되어 있다. 제1 서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드시니 하늘에서 가지가지 꽃이 뿌려지고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큰 광명을 놓으시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니 미륵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문수보살에게 그러한 신통 변화가 생기는 까닭을 묻는다. 문수는 과거의 부처님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반드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으니 이제 또 그러하니 법화경을 설하실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법화경은 전반부 후반부를 적문(迹門) 본문(本門)으로 구분하여 그 대의를 찾기도 했다. 28품 가운데 제1 서품부터 제14 안락행품까지를 적문법문이라 하고 제15 종지용출품부터 제28 보현보살권발품까지를 본문법문이라 한다.

적문이란 자취를 남겼다는 뜻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본문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응신불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근본 원인과 보처의 본체를 밝힌 법문을 말한다.

적문 법문에서는 방편품이 가장 중요하고 본문 법문에서는 여래수량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왔다. 또 전체 28품 가운데 예로부터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여래수량품, 약왕보살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의 7품을 법화경 요품이라 하여 다른 품보다 더 중요시 여겨왔다.

법화경의 법문을 실교법문(實敎法門)이라 일컫듯이 대승의 요의인 제법실상과 일불승(一佛乘)의 이치를 드러낸 법문이라 한다. 이를 회삼승 귀일승(會三乘 歸一乘)이라는 말로 대의를 나타내왔다. 광대하고 심심한 일승 실상법으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한다는 요지에서, 방편으로 설해진 권교법문인 삼승법을 회통해 일승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어떠한 것도 구경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화경의 특징은 신앙적 측면의 종교성과 교리적 측면의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종합되어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승의 보살 원력이 법화경 수지로 비롯된다는 상징적 법문도 설해져 있다. 일체중생 모두를 성불의 길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원력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해 놓고 있다. 법화경의 내용을 숫자로 간추려 표현해 온 말이 있다. 일승(一乘), 이문(二門) 삼주(三周), 사행(四行), 오사(五師), 육공(六功), 칠유(七喩), 팔보(八喜), 구유(九喩), 십여시(十如是)로 정리하여 이를 통해 법화경의 내용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五戒, '다섯 가지 큰 결심'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① 새해의 큰 결심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우울했던 한 해가 지나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이, 장밋빛 희망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지난해에 아쉬웠던 점들을 새해에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이를테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해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마도 실천하기 힘든 목표를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성급한 마음이 더해져서 몇 번의 시도로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해마다 번번이 실패하지만, 이런 결심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 그것을 쉽사리 실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폭식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눈앞의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성적으로는 폭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교 용어 가운데 습기(習氣, ⓢ vāsanā)의 뜻을 알면 금방 수긍할 것이다. 애초에 아무런 향기도 없는 의복에 꽃의 향기를 옮기면 그 향기가 배어든다. 향기가 의복에 배어들듯이, 경험이 무의식(=알라야식)에 뭔가의 형태로 배어 들어간다. 그렇게 배어든 경험, 즉 경험의 잠복 형태가 바로 습기이며, 그것은 미래의 경험을 산출해간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결심은 깊숙이 숨어 있는 경험으로 인해 쉽사리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해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큰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새해 결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단한 노력이 '큰 결심'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진 욕구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통제력을 높여야만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교의 계율(戒律)이다. 왜냐하면 초심자는 무의식중에 터져 나오는 본능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결심'을 되새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결심은 습관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변화된 행동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불자가 수지(受持)해야 하는 오계(五戒), 즉 다섯 가지 금지사항도 '다섯 가지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되새겨서 계속 반복한다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다섯 가지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에 다섯 가지 결심을 되새긴다면, 적어도 악행(惡行)이라는 구렁텅이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직 모르지만, 새로운 결심으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타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①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불과 2, 3년 전이었다. 불교학자 데이비드 드루스(David Drewes)는 국제불교학회지(JIABS)에 석가모니 붓다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신선한 점은 그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가장 공신력 있는 불교학술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앙아시아와 티벳불교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벡위드(Christopher Beckwith)는 프린스턴 대학출판사에서 '그리스인 붓다'를 출간했다. 벡위드는 여기서 석가모니가 룸비니에서 태어나 비하르 지방 근처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아니라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역의 이란인이라고 주장했다. 벡위드가 한국을 방문해 그의 주장을 피력할 때, 필자는 우연히 그를 대회장에서 논평할 기회가 있었다.

두 학자는 꽤 저명한 학자이며 신뢰할만한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기고해왔던 터라 이들의 돌발적인 주장에 한국의 불교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고사하고 해외 학계조차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침묵했다. 무시한 것이거나 그럴 리가 없다는 심증이 더 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들은 거의 2백 년 전 불교연구가 시작될 무렵 유럽의 학자들이 논의해왔던 아주 구태한 주제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불연 이기영 선생이 늘 영민한 학자로 칭찬해 마지않았던,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최근의 책, '일천번의 삶을 살았던 붓다'를 통해 위의 학자들과 같은 극단적인 회의론의 전선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르는 붓다의 일생이라는 것이 전설의 문턱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 전설의 의미는 허구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반복해서 읽을 만한 이야기 꺼리를 의미할 것이다. 어쨌든 붓다의 일생은 오랜 창작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석가모니 붓다의 '역사적' 일생을 기술할 수 없다는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학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자 커밍아웃일는지 모른다.

솔직히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교학자들의 글을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이 도전받거나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곤 한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할 때 더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의심하거나 그 근거를 되돌아본 적이 있던가. 석가모니는 정말 룸비니에서 탄생했을까, 그의 부모는 정말 정반왕과 마야부인이었을까, 그는 베다를 공부했을까.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떤 근거로. 누군가는 해외 학술서를 뒤적이고 조금 더 부지런한 불교인은 산스크리트 경전이나 팔리 경전을 뒤적여볼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일 것이다. 그 정보들의 근거는 과연 신뢰할만한 것일까. 불교학자들의 임무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일이다. 불교학자들이 하는 일은 심지어 경전 자체를 의심하는 일이며, 룸비니에서 출토된 토기가 진품인지 후대의 모사품인지를 검토하는 일 따위도 포함된다. 불교학은 불교를 위한 시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연재를 통해 필자에게 던져진 요청은, 고타마 싯다르타 당시의 사회적 풍속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싯다르타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회적 구조와 사상적 풍토 속에서 그가 살아왔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질문은 사실 대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의 어떤 불교학자도 이에 관해서 확정적인 대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개연성 있는 대답이 어떤 것인지는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개연성 있는 대답은 때때로 우리가 읽는 경전과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전도 역시 후대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을지언정,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 제주제2본산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주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치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중앙대로 1070 ☎ 042-525-5325